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areer and Care Support for Multicultural Youth and Teacher Relations, Career Preparation and Career Determination

Hyoung-Ha Le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career support and teacher relations of parents in order to determine the career determination of multicultural youths, and to confirm the influence of career preparation between parental career and care support and teacher relations. To this end, data from 2017 (the 7th year) was used among the data from the Multicultural Youth Panel Survey (MAP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first, career support, teacher relations, and career preparation of multicultural youth parents have a positive impact on career determination. Second, the importance of the relative influence of career preparation, which is an internal context factor, was also confirmed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career path of multicultural youths. Third, it was analyzed that the higher the career and childcare support of multicultural youth parents, the more positive the teacher relationship, the higher the career determination. Career preparation was confirmed to play a role in mediating career support and teacher relations among multicultural youth parents in determining career path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practical alternatives were proposed to enhance the career determination of multicultural youths.

▶ **Key words:** Multicultural Youth, Parental career and care support, teacher relations, career preparation, career determination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을 규명하기 위해 부모의 진로·양육지원과 교사관계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부모의 진로·양육지원과 교사관계 사이에서 진로준비성의 매개효과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데이터 중 2017년 자료(7차년도)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 교사관계, 진로준비성은 진로결정성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 과정에 개인 내부적 맥락요인인 진로준비의 상대적 영향력의 중요성도 확인되었다. 셋째,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이 높아질수록, 교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진로결정성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로준비성은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과 교사관계를 진로결정성에 매개해 주는 역할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다문화청소년, 부모진로·양육지원, 교사관계, 진로준비성, 진로결정성

-
- First Author: Hyoung-Ha Lee, Corresponding Author: Hyoung-Ha Lee
 - *Hyoung-Ha Lee (hhlee62@kwu.ac.kr),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 Received: 2020. 05. 04, Revised: 2020. 05. 24, Accepted: 2020. 05. 26.

I. Introduction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가운데 다문화 학생의 비중이 2018년에 처음으로 2%를 넘었다. 다문화 학생의 수는 2014년 기준 67,806명에서 2018년 기준 122,212명으로 늘어나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학령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과 대조적으로 국제결혼 등의 증가로 다문화 학생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학생 중 고등학생은 2014년 6,734명에서 2018년 10,688명으로 5년 사이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1]. 다문화학생의 연령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아동기에 필요한 교육이나 언어와 문화적응 등의 지원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데 요구되는 진로 및 자립 지원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이르렀다[2].

진로발달은 개인의 일생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와 선택이 요구되는 과업 중 하나이다. 진로와 관련된 모든 행동은 한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개인적 특성과 생태체계적인 환경 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된다[3-5]. 청소년기의 진로결정은 지금 당장 직업을 선택하고 현장에 나가기 위한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탐색의 결과물이자 미래진로 방향을 선택하고 진로 준비 활동을 하기 위한 진로목표로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기에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올바른 진로결정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6-7].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8]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희망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진로관련 프로그램이 21.1%에서 2018년 조사에서는 38.1%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진로교육이나 상담에 대한 지원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다문화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낮은 자존감과 함께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은 불안,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9-10].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이중문화 배경으로 초래되는 정체성 혼란경험, 상이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압박감 등으로 인해 진로결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11-12]. 또한, 다문화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소외 혹은 폭력의 피해대상이 되어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의 사회적 위축 상황에 노출되어 정체성 형성과 진로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위한 안정적·통합적 시스템이 부재하고, 더욱이 다문화청소년의 문

화적·언어적 차이를 고려한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도 부족하다[12-13]. 선행연구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진로발달 수준이 낮고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5][14-16]. 특히,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겪게 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적 편견 및 차별적 대우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자녀의 진로결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지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17].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의하면, 청소년기 진로결정은 개인의 내면적 특성과 그가 처한 환경과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다차원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획득되는 과업이다[2]. 특히, 1차적인 사회적지원인 부모의 지지와 학교에서 학업지도와 진로상담의 2차적인 지원인 교사와의 관계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준비와 진로결정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에 있어 부모요인이 중요함이 확인되고 있는데[18], 부모의 교육지지가 높을수록 자녀의 직업포부나 진로정보 탐색 등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21]. 부모가 긍정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에 관여하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10][22]. 또한, 학교에서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및 상호작용, 학교의 진로교육, 진로교육프로그램과 진로관련 활동은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23-24].

최근 진로발달 관점에서는 다양한 상황과 행위자의 맥락요인(contextual factor)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맥락주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맥락적 행동이론은 개인과 직업세계,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변화하는 개인 외부의 요인들이 개인내부의 능력이나 특성에 영향을 주어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내린다[24].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양한 진로결정을 위한 실천 행동으로 진로준비행동이 강조된다. 진로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탐색하고 준비하며 실행하는 것이다[25-26]. 이러한 진로준비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맥락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26-27].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은 개인외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진로양육 지원과 교사관계의 영향과 더불어 개인내부의 행동양식인 진로준비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가족을 중심으로 한 부모의 지지와 학교의 주요 맥락적 자원인 교사의 지지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준비와 더불어 진로결정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서 부모의 진로·양육지원과 교사와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 변인의 어떠한 중재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은 선행연구와도 차별되는 접근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을 규명하기 위해 부모의 진로·양육지원과 교사관계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부모의 진로·양육지원과 교사관계 사이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은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교사관계는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준비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과 교사관계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진로준비성이 매개효과를 미치는가?이다.

II. Research Method

1. Analytical data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데이터 중 2017년 자료(7차년도)[28]를 활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 패널 구축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조사 대상으로 총 1,625가구(학생 1,635명, 학부모 1,615명)를 대상으로 구축되었으며, 동일한 대상을 2019년까지 총 9개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설계가 되었다. 종단조사 특성상 매년 중도 탈락이 발생하여 7차년도에 응답한 가구는 총 1,251가구(청소년 1,260명, 학부모 1,227명)였다. 현재 패널데이터는 7차년도까지 공개(2019년)되어 활용 가능하며,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다문화청소년 1,260명 중 중학교에 재학중인 4명을 제외한 고등학생 1,256명(남학생 613명, 여학생 643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2. Research model

2.2.1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외부 요인으로 부모의 진로·양육지원과 교사관계를, 개인내부 요인으로 진로준비성이라는 맥락적 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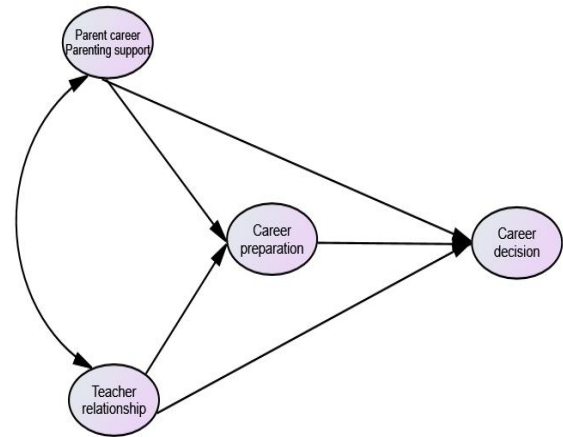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2.2 Research hypothesis

연구가설1.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성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2. 다문화청소년의 교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진로준비성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3.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성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4. 다문화청소년의 교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진로결정성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5.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준비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성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6.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은 진로준비성을 매개로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7. 다문화청소년의 교사관계는 진로준비성을 매개로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Measuring tools

2.3.1 Parent Career Parenting Support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진로·양육지원 요인은 부와 모의 진로지지 변인과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진로지지 척도는 Dietrich와 Kracke[29]가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진로관련행동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PCB)를 조아라 등[30]이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orean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s)로 번안하여 사용한 부와 모의 진로지지 척도를 활용하였다. 부와 모의 진로지지 척도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도록 격려해주시다”, “나에게 가능한 진로들의 선택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진로 분야의 체험기회에 대하여 나에게 말씀해주신다” 등 각각 3문항 4점 리커트 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부의 진로지지 척도의 Cronbach's $\alpha=.883$. 모의 진로지지 척도의 Cronbach's $\alpha=.867$ 이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허묘연[31]이 개발한 부모양육태도(감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양육태도(감독) 척도는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등 각각 3문항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척도의 Cronbach's $\alpha=.858$ 이었다.

2.3.2 Teacher relationship

교사관계 척도는 김지경[32]의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교사관계 척도 5문항 중에서 발췌한 “학교생활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서 의논할 선생님이 있다”,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나에게 친절하시다”,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좋다” 등 3문항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교사관계 척도의 Cronbach's $\alpha=.888$ 이었다.

2.3.3 Career preparation

진로준비성 척도는 이기학, 한종철[33]의 진로태도 5가지 차원 가운데 ‘준비성’을 측정하는 10문항문항 중에서 발췌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고 싶다”,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졸업한 선배들이 진학 및 진로에 대해 설명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등 4문항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진로준비성 척도의 Cronbach's $\alpha=.790$ 이었다.

2.3.4 Career decision

진로결정성 척도는 이기학, 한종철[33]의 진로태도 5가지 차원 가운데 ‘결정성’을 측정하는 13문항 중에서 발췌한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할지 막막하다(R)”,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다(R)” 등 4문항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진로결정성 척도의 Cronbach's $\alpha=.824$ 이었다.

2.4 Analysis method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는 SPSS 18.0과 AMOS 22.0을 사용하였고,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 부

모의 진로양육·지원과 교사관계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진로준비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적용하였다. 둘째, 잠재변수인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 교사관계, 진로준비성, 진로결정성에 대해서는 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모수의 추정에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절대적합도는 χ^2 의 값뿐만 아니라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GFI(Goodness of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d residual) 등 절대적합도지수(absolute fit index)를 함께 고려하여 검증하였다. 넷째, 매개변수인 진로준비성의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적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위해서는 결측치가 없어야 하므로 예측정확성이 양호한 결측치 대체(imputation)법에 대한 선행연구[34]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EM(Expectation-Maximization)에 의한 결측치 처리를 하였다[35].

III. Results of the study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분석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Table 1.에서 살펴보면, 전체 다문화청소년 1,256명중 남학생 613명(48.8%), 여학생 643명(51.2%)이며 모두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만연령은 평균 15.97세(표준편차=.354)이며, 15세 93명(7.4%), 16세 1,117명(88.9%), 17세 41명(3.3%), 18세 4명(0.3%)만, 19세 1명(0.1%)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 교육수준은 중학교졸업 이하 135명(10.8%), 고등학교졸업 596명(47.5%), 전문대학교졸업이상 523명(41.7%)이었고, 아버지 학력은 중학교졸업 이하 371명(30.9%), 고등학교졸업 627명(52.2%), 전문대학교졸업이상 204명(16.9%)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고등학교졸업 이상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의 외국인출신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아버지 40명(3.2%), 어머니 1,213명(96.3%), 두 분 모두 외국인과 한국인 7명(0.6%)으로 대부분의 어머니가 외국인출신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출신국가로 한국 41명(3.3%), 중국(조선족 포함) 309명(24.6%), 일본 435명(34.6%), 필리핀 330명(26.3%), 동남아 79명(6.3%), 기타 국가 62명(4.9%)이었다. 반면, 아버지 출신국가로 한국

1,159명(96.4%), 중국(조선족 포함) 2명(0.2%), 일본 17명(1.4%), 필리핀 5명(0.4%), 동남아 3명(0.3%), 기타 국가 16명(1.3%)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Classification		N(%)
gender (n=1,256)	Male student	613(48.8)
	Female student	643(51.2)
school class (n=1,256)	High school	1,256(100.0%)
age (n=1,256)	15 years old	93(7.4)
	16 years old	1,117(88.9)
	17 years old	41(3.3)
	18 years old	4(0.3)
	19 years old	1(0.1)
mother education (n=1,254)	middle School or below graduation	135(10.8)
	high school graduation	596(47.5)
	college graduation ot higher	523(41.7)
father education (n=1,202)	middle School or below graduation	371(30.9)
	high school graduation	627(52.2)
	ollege graduation ot higher	204(16.9)
foreign parents (n=1,260)	father	40(3.2)
	mother	1,213(96.3)
	both are foreigners	5(0.4)
	both are korean	2(0.2)
mother nation (n=1,256)	Korea	41(3.3)
	China+Korean-Chinese	309(24.6)
	Japan	435(34.6)
	Philippines	330(26.3)
	Southeast Asia	79(6.3)
	Other	62(4.9)
father nation (n=1,202)	Korea	1,159(96.4)
	China+Korean-Chinese	2(0.2)
	Japan	17(1.4)
	Philippines	5(0.4)
	Southeast Asia	3(0.3)
	Other	16(1.3)

2. Checking data and Verify the nomality of Measuring variables

본 연구는 부모의 진로·양육지원(부의 진로지원, 모의 진로지원,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관계, 진로준비성, 진로결정성 등 4개의 잠재변수와 11개의 측정변수로 구성되었다. 먼저, 기술통계 분석결과,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2.88(표준편차=.458), 교사관계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84(표준편차=.653),

진로준비성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2.98(표준편차=.466), 진로결정성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2.72(표준편차=.595)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청소년의 교사관계가 높은 긍정적 관계를 보이며, 진로준비성과 부모의 진로·양육지원 수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측정변수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전 기초분석으로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와 왜도 및 첨도 등을 확인하였다(Table 2. 참조). 먼저, 주요 잠재변수간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부모의 진로·양육지원은 교사관계($r=.340, p<.001$), 진로준비성($r=.160, p<.001$), 진로결정성($r=.159, p<.001$)과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와 진로준비성($r=.145, p<.001$), 교사관계와 진로결정성($r=.212, p<.001$), 진로준비성과 진로결정성($r=.197, p<.001$)과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 결과 VIF값이 1.043~1.750로 모두 1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변수들의 왜도는 -.404에서 .000, 첨도는 .402에서 1.985의 범위에 있어 정규분포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조방정식의 정규분포성 가정 충족 여부는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이면 추정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36].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ajor variables

	(1)	(2)	(3)	(4)
(1)	1			
(2)	.340**	1		
(3)	.160**	.145**	1	
(4)	.159**	.212**	.197**	1
Mean	2.8812	3.8413	2.9815	2.7213
S.D.	.45754	.65308	.46579	.59518
Skew	-.374	-.404	-.150	.000
Kurtosis	1.823	1.064	1.985	.402

(1) Parent career Parenting support,
(2) Teacher relationship,
(3) Career preparation, (4) Career decision

3. Measuring model and Structure model analysis

3.1 Measuring model analysis

본 연구의 잠재변인은 부모의 진로·양육지원, 교사관계, 진로준비성, 진로결정성을 모두 포함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각 측정변수들이 요인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살펴보았다(Table 3. 참조). 각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 경로는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는 $\chi^2=676.885(df=70, p=.000)$, CFI=.935, TLI=.915, GFI=.944, RMSEA=.073, SRMR=.029로 적합도 지수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괜찮은 수준의 적합도로 분석되었다[35].

다음으로 각각의 잠재변수의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0.7 이상으로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측정지표들이 구성개념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다. AVE(평균분산 추출량) 값은 0.5 이상으로 모형의 개념구성들에 대한 집중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Structure model analysis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는 Figure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384.496(df=63, p=.000)$, CFI=.966, TLI=.950, GFI=.968, RMSEA=.056, SRMR=.023로 전체적으로 적합도가 양호한 모델로 판명되었다[35].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의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모형의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 부모의 진로·양육지원, 교사관계, 진로준비성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경로를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beta=.108, p<.01$)은 진로준비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가설1 지지). 다문화청소년의 교사관계($\beta=.137, p<.001$)는 진로준비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가설2 지지).

부모의 진로·양육지원($\beta=.099, p<.001$)은 진로결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3 지지). 즉,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성은 유의하게 상승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교사관계($\beta=.100, p<.001$)는 진로결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4 지지). 즉, 다문화청소년의 교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진로결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준비성($\beta=.321, p<.001$)은 진로결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5 지지). 즉,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준비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성이 유의하게 상승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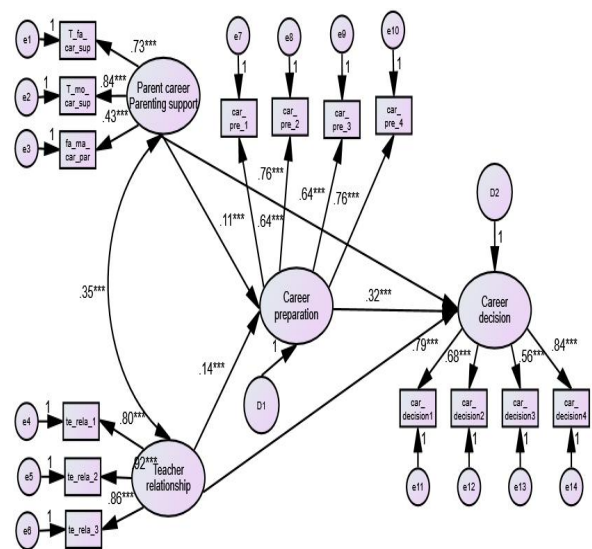


Fig. 2. Structure Model Analysis Results

Table 3. Path Coefficients of Structural Model

Path			Estimate		S.E.	C.R.	AVE	Construct Reliability
			B	<i>B</i>				
Parent career Parenting support	→	T_fa_car_sup	2.073	.733	.016	15.019***	0.970	0.989
	→	T_mo_car_sup	2.254	.840	.015	14.394***		
	→	fa_ma_car_par	1.000	.428	.013			
Teacher relationship	→	te_rela_1	.944	.797	.019	38.498***	0.977	0.992
	→	te_rela_2	.955	.917	.016	44.318***		
	→	te_rela_3	1.000	.859	.018			
Career preparation	→	car_pre_1	1.006	.641	.013	22.669***	0.971	0.993
	→	car_pre_2	1.071	.754	.016	25.476***		
	→	car_pre_3	1.016	.641	.014	22.681***		
	→	car_pre_4	1.000	.759	.016			
Career decision	→	car_decision_1	.925	.785	.019	27.858***	0.967	0.991
	→	car_decision_2	.747	.677	.018	25.537***		
	→	car_decision_3	.555	.556	.017	19.147***		
	→	car_decision_4	1.000	.843	.018			
$\chi^2=676.885(df=70, p=.000)$, CFI=.935, TLI=.915, GFI=.944, RMSEA=.073, SRMR=.029								

***p<.001

Table 4. Structure Model Path Coefficient

Path		Estimate		S.E.	C.R.	p
		B	B			
Parent career Parenting support	→Career preparation	.201	.108	.063	3.188	.001
Teacher relationship	→Career preparation	.088	.137	.020	4.347	.000
Parent career Parenting support	→Career decision	.192	.099	.058	3.306	.000
Teacher relationship	→Career decision	.067	.100	.019	3.565	.000
Career preparation	→Career decision	.336	.321	.043	7.833	.000

$\chi^2=384.496(df=63, p=.000)$, CFI=.966, TLI=.950, GFI=.968, RMSEA=.056, SRMR=.023

3.3 Mediating effect analysis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실시 하였다. BC의 신뢰도 구간은 95%로 설정하여 간접효과의 유의한 경로는 Table 5.와 같다.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이 진로준비성을 매개로 진로결정성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beta=.087$, $p=.004$)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가설6 지지). 즉,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성을 향상시켜 진로결정성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교사관계가 진로준비성을 매개로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beta=.034$, $p=.006$)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가설7 지지). 즉, 다문화청소년의 교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진로준비성을 향상시켜 진로결정성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2017년 자료(7차년도)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맥락적 차원인 부모의 진로·양육지원과 교사관계가 진로준비성과 진로결정성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연결관계를 설정하는 이유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은 자신의 진로준비성 뿐만 아니라 외부적 지지체계인 부모의 진로양육·지원과 더불어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주요 분석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Table 5. Intermediate effect analysis through bootstrapping

Path	Indirect effect	S.E.	p	95% confidence interval* (BC: Bias-corrected)
Parent career Parenting support→ Career preparation→ Career decision	.087	.020	.004	.024~.087
Teacher relationship→ Career preparation→ Career decision	.034	.007	.006	.011~.034

주: *Bias-corrected 95% confidence interval: Estimates are standardized coefficients

첫째,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 교사관계, 진로준비성은 진로결정성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긍정적인 자녀의 진로관여는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2][10][20-22]. 또한, 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진로관련 활동은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23-24]. 특히, 교사관계($\beta=.137$, $p<.001$)가 진로준비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모의 진로·양육지원($\beta=.108$, $p<.00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사의 적극적인 지지도 중요하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 과정에 가장 중요한 개인내부적 맥락요인인 진로준비의 상대적 영향력($\beta=.321$, $p<.001$)도 확인되었다. 이는 진로결정 과정에서 청소년 자신이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준비하며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다[25-26].

둘째,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이 높아질수록, 교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진로결정성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결구조 과정에 진로준비성은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양육지원과 교사관계를 진로결정성에 매개해 주는 역할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이 진로결정에 있어 단순히 개인 내적요인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학교관계 모델(family-school relationship model)에서 설명하는 통합적 관점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2][37].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은 주요 행위자의 지지와 관계에 근거한 맥락적 요인과 자신의 내면적 특성인 진로준비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로결정에 이른다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을 일정부분 확장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성장에 따른 부모교육과 더불어 체계적인 진로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전문적인 진로분야에 대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학습과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강화하고 간접수준은 낮추는 대화방식의 적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체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다차원적인 연계협력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진로지원을 위한 교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도 중요하며, 학교사회복지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진로상담에 대한 역할과 적절한 개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지원을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멘토링 체계를 마련함도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청소년 자신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탐색한 진로분야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직업 역량 개발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와 이중언어적 배경을 강점으로 진입 가능한 직업 분야를 모색하고 이에 필요한 진로준비 프로그램 개발과 직업 분야에 대한 인턴경험 등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문제의 확장을 위한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특정된 시점의 횡단적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진로준비성과 진로결정성 등의 변화과정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부모의 진로·양육지원, 교사관계의 맥락적 요인만을 분석하였지만 향후 지역사회요인 등도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집단 분석, 인문계와 전문계 등의 대학진학과 취업진출에 따른 집단 분석을 통해 진로준비성과 진로결정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EMENT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in KWUI20-019.

REFERENCES

- [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9). 2019 Youth Statistics.
- [2] H. L. Chang & R. H. Lee. (2019). The influence of parental support on career decision-making through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47, 189-218. DOI : 10.20993/jSSW.47.7
- [3] M. G. Constantine, B. C. Wallace & M. M. Kindaichi. (2005). Examining contextual factors in the career decision status of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3), 307-319. DOI : 10.1177/1069072705274960
- [4] R. W. Lent, S. D. Brown & G. Hackett. (1994). Toward a unified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DOI: 10.1037/0022-0167.50.4.458.
- [5] Y. M. Kim & A. N. Hyun. (2020). A Structural Analysis of Contextual Factors, Career Barrier, and Career Decision-Making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49, 311-338. DOI : 10.20993/jSSW.49.13
- [6] H. K. Moon. (2016).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A University. UCI : I804:21008-000002294429
- [7]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5). Longitudinal survey of multicultural youth and study on policy measures III.
- [8] J. H. Park & J. S. Nam. (2010). The Language Develop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 *Studies on Korean Youth*, 21(2), 129-152. UCI : G704-001385.2010.21.2.003
- [9] Y. M. Ko & J. Y. Lee. (2009). The Factors in relation to School Adjustment for Childre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7(1), 49-63. DOI : 10.35151/kyci.2009.17.1.004
- [10] Y. H. Kim. (2017). The Effect of Multicultural Youth's Perceived Social Support on Career Determination: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Elasticity. 2017 Multicultural Youth Panel Conference, 403-418.
- [11] C. A. Storlie, C. D. Chan & L. Vess. (2019). Examining positive youth development in diverse youth through the future career autobiography.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Counseling*, 5(2), 1-15. DOI : 10.1080/23727810.2019.1609837

- [12] Y. J. Shin & K. S. Lee. (2019).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in Relations to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5(3), 95-120. DOI : 10.26857/JLLS.2019.8.1.5.3.95
- [13] S. C. Ryoo & Y. O. Lee. (2016). The Perceptions and Needs about Career Curriculum of Multicultura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2(6), 451-481. DOI : 10.24159/joec.2016.22.6.451
- [14] M. K. Kim. (2015). A Phenomenological Study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Experience.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3(2), 12-134. UCI : G704-001838.2015.13.2.017
- [15] U. Ryou & K. H. Kim. (2015). mparing Korean Immigrant Adolescents and Non-Immigrant Adolescents(Korean parents famil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7(1), 5-29. DOI: 10.20970/kasw.2015.67.1.001
- [16] A. R. Lee, B. Y. Son & J. Y. Lee. (2018). The Development of Career Barrier Scale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9(5), 257-272. DOI : 10.15703/kjc.19.5.201810.257
- [17] K. M. Yang, M. J. Yun, H. O. Shin & H. I. Cho. (2016). Multicultural Youth Longitudinal Survey and Policy Research IV: Executive Report.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18] J. M. Lee & I. S. Oh. (2013).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and Attachment with Parents upon Perception on Career Barrier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cus 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Th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4(3), 193-216. UCI : G704-001618.2013.44.3.003
- [19] M. S. Kim & M. H. Lee. (2019).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f multicultural families on adolescents career adaptabil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2(1), 19-34.
- [20] H. Y. Jo. (2018). *A comparative study of the effects of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 academic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vocational aspirations of middle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i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21] P. Guan, A. Capezio, S. L. D. Restubog, S. Read, J. A. L. Lajom & M. Li. (2016). The Role of Traditionality in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4, 114-123. DOI : 10.1016/j.jvb.2016.02.018
- [22] Y. K. Lee, Y. J. Yun & H. B. Bang. (2012). Influence of Parents' Positive Career Involvement upon Adolesc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Centering on Comparison between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General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2), 129-154. UCI : G704-000387.2012.19.2.008
- [23] S. G. Oh & J. S. Lee. (2016).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Career Preparation and Career Resolution Factors of Alternative School Student. *Journal of Youth Welfare*, 18(3), 123-149. DOI: 10.19034/KAYW.2016.18.3.06
- [24] J. N. Yoo & s. h. kIM. (2018). A study on career decision factors of immigrant youth. *The Multicultural Child and Youth Studies*, 3(1), 3-46.
- [25] M. Conner, T. Sandberg & P. Norman. (2010). Using action planning to promote exercise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40(1), 65-75. DOI: 10.1007/s12160-010-9190-8
- [26] Y. H. Jung & J. S. Jun. (2019). Mediation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Korean Education Inquiry*, 37(1), 167-185. DOI : 10.22327/kei.2019.37.1.167
- [27] H. S. Song & H. y. Hong. (2010).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3), 1325-1350. DOI : 10.15703/kjc.11.3.201009.1325
- [28]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7). 7th Multicultural Youth Panel Data.
- [29] J. Dietrich & B. Kracke. (2009). Career-specific parental behaviors in adolescents'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2), 109-119. DOI : 10.1016/j.jvb.2009.03.005
- [30] A. R. Cho, S. K Yoon & E. J. Yang. (2013). Korean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0(3), 389-408. DOI : 10.16983/kjsp.2013.10.3.389
- [31] M. Y. Huh. (2000).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ventory for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2(2), 170-189. UCI : G704-000485.2004.12.2.011
- [32] J. K. Kim. (2010).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33] K. H. Lee & J. C. Han. (1997). Tools for validating career attitude measurement tool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8, 219-255. UCI : I410-ECN-0102-2009-370-006737372
- [34] Michael Steven Gold & Peter M. Bentler. (2000). Treatments of Missing Data: A Monte Carlo Comparison of RBHDI, Iterative Stochastic Regression Imputation, and Expectation-Maximiz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9, 319-355. DOI : 10.1207/S15328007SEM0703_1
- [35] J. P. YU (2017).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Seoul: Hannarae Publishing.
- [36] H. J. Lee & M. Y. Um. (2017). The Relationship among Potential Job-related Risks, Emotional Dissonance, and Turnover Intention of Caregivers at Long-term Care Facilities :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Burnou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8(4), 187-219. DOI : 10.16999/kasws.2017.48.4.187

- [37] S. H. Jung & H. S. Jang. (2015). A Discussion about Self-Determination Theory on HRD Application.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7(3), 99-131. DOI : 10.18211/kjhrdq.2015.17.3.005

Authors



Hyoung-Ha Lee received the M.S. and Ph.D. degrees in Social Welfare from Dongshin University, Korea, in 2000, and 2004, respectively. Dr. Lee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Metropolitan city, Korea, in 2004. He is interested in Poverty Problems, Multicultural Migration, Baby Boom Welfare.